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동북아 농업농촌발전 국제심포지엄’은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구조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통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공동연구로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심포지엄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매년 순회 개최하며, 심포지엄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포지엄과 함께 현지조사 또는 농촌견학을 겸하며, 지속적인 연구회가 되기 위하여 참가자가 협력하여 운영하며, 비용은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제7회 심포지엄은 최근 한중일 3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의 글로벌화에 의한 농업교역 변화와 협력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현지시찰 등을 행한다.

2. 출장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태 곤

3. 출장지역 및 출장기간

- 중국 장춘(长春)
- 8월 17일(화)~20일(금) 3박 4일

4. 참가기관

- 중국 길림농업대학, 길림성농업과학원, 중국농업대학, 산서농업대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산대학교
- 일본 토야마대학, 동경농업대학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孙 少平 중국 吉林农业大学 부총장
韩 星焕 중국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원장

姜 会明	중국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赵 贵玉	중국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조교수
长 越杰	중국 길림농업대학 국제협력과 교수
李 云南	중국 길림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郭 庆海	중국 길림성농업과학원 부원장
武 拉平	中国农业大学 경제관리학원 교수
朱 俊峰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杨 欣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대학원
陈 慧萍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대학원
李 富忠	중국 山西農業大學 경제관리학원 교수
吴 国良	길림성 농업위원회 경관처 처장
酒井 富夫	일본 토야마대학 교수
菅沼 圭輔	일본 동경농업대학 국제식료정보학부 교수
董 彪	일본 동경농업대학 대학원

II. 출장 결과

1. 발표 요지

□ 요약

- WTO/FTA 등에 의해 진행되는 글로벌화는 불가피한 대세이다. 글로벌화는 산업간 및 지역간 발전과 퇴보 등 양면성을 가진다. 글로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한국 농업에서 글로벌의 부작용은 농업생산 축소,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소득문제는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가계층간 소득격차’가 동시에 확대되는 ‘2중의 격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 식량안보문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 소득문제는 이미 일본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고, 중국도 WTO 가입이후 농산물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도농간 격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지 중국은 아직까지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소득문제는 동북아 공통의 과제이다.
- 소득감소의 요인은 글로벌과 관련하여서는 관세 감축이나 철폐에 따른 수입농

산물의 증가, 이에 의한 농산물 가격하락, 그리고 국내 농업생산 감소 등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다. 다른 하나는 국내 농업보조의 감축이다. 농업보조의 감소는 주로 가격지지이며, 이것이 소득감소의 요인이 된다. 가격지지 폐지는 일부 직불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 소득문제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직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직불제의 실시동향과 최근 개편논의에 대해 소개한다. 이것이 일본, 중국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공익형 직불제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의 개편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과 연계하여 직접지불을 실시하는 새로운 농업보호이다.
- 그러나 소득문제는 직불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실현하는 생산활동, 원료 농산물을 판매하기 보다는 가공이나 유통, 직거래, 교류 등 농업의 6차산업화에 의한 고부가가치 실현, 가공 수요의 개발·사료용 전환·수출 증대 등 새로운 수요창출 등 다양한 활동이 동원되어야 한다.

□ 발표자료

<별첨>



2. 길림성 농업 개요

□ 개황

- 길림성은 8개 시, 1개 자치주, 1개 장백산관리구
- 62개 현시, 624개 향진, 9,321개 촌(행정촌)
- 농지 530만ha, 목축업이 농업생산의 50% 차지

□ 이농촉진

- 농촌과잉인구 해소로 소득증대 도모
- 호적, 주거, 교육 등 3문제 해결하여 이농을 촉진
- 특대도시, 대도시는 호적 제한이 남아 있으나 중소도시는 호적문제 해소

□ 옥수수

- 길림성의 최대 생산품목, 1,750만톤 생산, 중 1,000톤이 가공 처리
- 주로 사료용, 식품용, 약품용으로 가공
- 가공기술 발달로 소득 증대, 연간 5,000위안/ha 소득확보 가능
- 60여년 이상의 연작을 통하여 토지 열화, 단수 감소
- 옥수수 줄기는 과거 연료로 사용, 밭에서 소각 등, 현재 압축하여 알코올·가스 생산, 분쇄하여 비료, 양·소의 사료로도 사용, 600위안/톤 거래
- 옥수수는 중국의 유일한 수출곡물이었으나, 2010년부터 옥수수 순수입국으로 전락, 향후 세계 곡물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

□ 농협(합작사)

- 성내 8,900개 합작사 설립(2008년 2,000개, 2009년 5,000개)
- 관할구역은 현진단위, 현단위, 촌단위 등 다양
- 종합농협에서 전문농협, 기능별 조합 등 다양한 형태
- 최근 ‘산업화경영’에 관여하여 농가의 권익보호에 기여

□ 산업화경영(대만은 기업화경영)

- 용두기업·농협·영세농가간의 계약거래방식
- 10년전부터 등장, 최근 확산경향
 - 1980~90년, 협회중심으로 정보교환
 - 1990~2000년, 협회가 합작 조직화
 - 2000년대 초기, 고도 성장, 현재 조직 증가, 서비스 다양화
- 용두기업은 주로 가공업체이며, 파종전 가격결정(전년가격이 기준), 시장가격보다 약간 높게 설정
- 가공용 옥수수 1,000만톤 중 절반이 계약거래
- 가공업체는 원료확보, 품질관리 면에서 계약거래가 유리

□ 대두

- 중국의 대두는 대부분이 착유용
- 수입 증가, 2010년 4,000만톤 초과 전망
- 벼, 옥수수에 비해 소득감소, 대두·옥수수 상대가격 2.4배

□ 토착 가공업체

- 산지에서 곡물메이저의 수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 지역토착 가공업체는 산업화경영의 용두기업, 농가와의 계약거래 등으로 지역농업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 인정

3. 길림성 농업박람회 시찰

- 길림성 정부가 매년 8월 개최하며, 길림농업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여 시험연구 결과, 주요 농산물 등을 출품하고 홍보하는 행사이다.
- 품목은 일반 곡물을 비롯하여, 채소, 과일, 화훼, 축산 등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품종이나 새로운 재배방법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박의 경우 50kg 정도의 대형수박과 직립재배하는 소형수박 등이 전시되고 있다.
- 또한 용설란 전용전시관에서 화분 하나에 7,777만 위안의 용설란이 있을 정도로 고급 농산물이 전시되는 반면에, 관광농업관에서는 경관작물, 소형과일, 다양한 관상용 작물 등이 소개되고 있다.



(이상)